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방부



3(代)가 멸족하려면 국무의원 또는 국무총리가 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소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등의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 후보자의 모든 것들이 둘째 어지고 해부되다 보니 결국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차부가 노출되어 개인이 조개지고 난도질당할 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이다. 이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회 법이 시작되었고, 2003년에는 4대 권력 기관장이, 2005년에는 국무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청문회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직이 끝난 사람이거나 또는 무슨 의혹사건이 있으며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의 대상은 항상 대상이 될 만한 것도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청문회를 통하여 송곳 같고, 속 시원한 청문회를 한 국회 의원이 스타가 되기도 해서 소위 '청문회 스타'라는 용어도 생겼다.

며칠 전에도 개각이 되어 국무총리, 국무의원 몇 명, 대법관 등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전에 각자의 인물 평에서 또 그 지지지지하게(?) 들어온 군대 안 갖다, 위장진입 했다, 부동산 투기했다, 세금 탈루했다, 논문 표절·증복이 있

었다는 말이 줄을 이었고 또한 한결같이 청문회 때 다 말씀 드리겠다, 죄송하다는 말들이 청문회 대상자들의 해명(?)이 반복되었다. 사실 청문회 때마다 회자되는 군대, 위장진입,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논문표절 등등은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게 한국사회다. 또 사실 뭐 그까짓

그렇게도 사람이 없소

것 누구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무슨 잘못이냐? 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잘 아는 미국 '불티모어'에 사는 대학교 선배가 있다. 1973년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선배에서 초대받은 적이 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자네 군대 갖다 왔지?" 하고 물는다. "네! 육군대위로 3년 3개월 복무하고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물으세요?" 그 선배가 대답이 "자네가 요 사이 유학하기 어려운데 유학 왔고 해서 빡 쓰고 군대를 연기했거나, 뻔 게 아닌가 싶어 물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어서 고속도로(Free way)에서 차를 멈춘 후 뒷 자석의 두 유학생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문을 잠그고 출발하며 "너희 놈들 구보!" 하고 떠나왔다고 하며 특유의 너털웃음으로 웃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아주 멋쟁이 산부인과 여의사가 있는데 유태인이라고 하며 얼마 전에 남편이 미국에서 변호사였는데 중동전쟁에서 사망했다고 하였다. 얘기인즉슨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 남편은 변호사, 이 부부가 중동전쟁이나 자진해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참전했고, 남편은 탱크 병으로 부인은 군의관으로 참전했으며 불행히도 남편은 전사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국민이면 누구나 군대에 간다고 한다. 남녀의 구별도 없단다. 그리고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그 이외의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군복무를 안 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공직(公職)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공직은 안 된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국민의 3대 기본의 무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고 전역 공직을 맡는 것과는 상관없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유를 대고 별명을 하여 사과를 해도 군대를 안 간 것은 사실이 아닌가?

혹자는 청문회가 도덕적 검증을 하는 것 이지 않느냐. 개인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으나 기껏해야 1년, 1년 반 심지어 몇 개월 하는 국무의원 자리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는가?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 설쳐서 짐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일이지? 솔직히 한마디 할까? 그렇게 사람이나 없소, 항상 군대 안가고, 위장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세금 탈루하고, 논문 표절한 인사 외에는!

물론 윗물들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1년, 기껏해야 1년 반 정도 국무의원을 하는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소. 제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좀 임명 하시오... 부탁 또 부탁합니다.

(가천의과대학교 부총장·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정회석



전 세계가 녹색 경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 예코, 친환경 등의 수식어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화학물질 오염 등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가 정부는 물론 기업경영의 패러다임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물론 기후변화 대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미국도 변하고 있다. 이들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

기고

박득서



의 감축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1은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보다 21% 감소(2005년 배출량 대비 8% 증가)시키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감축수단을 활용하여 달성을 할 수 있다. 시나리오 2는 배출전망치 대비 27%를 감축(2005년 수준동결)을 목표 한 것으로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을 추가로 적용한 것이다. 가장 강도높은 시나리오 3은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소(2005년 대비

이들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위해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사용과, 밝은 계통의 복장을 피해야 하고 소매가 긴 옷과 장화,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전 산소 주변을 장대 등을 이용해 벌집이나 벌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취기기를 짊어진 상태에서 땅벌이나 벌 같은 독성이 큰 해충을 만나게 되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프레

녹색경쟁과 기업의 대응

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너스-罚罚스' 제도를 도입했다. 또 많은 나라에서 제품의 원료 확보에서 생산·유통·폐기로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탄소발자국'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세계 유수기업들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GE는 2006년 환경과 생태를 의미하는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을 친환경 성장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도요타, IBM 등 글로벌 기업들도 녹색경쟁 시대를 맞이할 준비에 착수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지난해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스타트 운동과 4대 강 살리기 사업 등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와 함께 3가지

4% 감소)를 목표 한 것으로 유럽연합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수준이다. 최종안은 앞으로 공정회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최근 유엔 환경계획(UNEP)은 '한국 녹색성장 보고서'를 발간하여 우리나라를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 높이 평가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역산업에 위기 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전남지역은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의 업종이 밀집되어 배출량 기준으로 볼 때 16개 시·도 중 충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

녹색경쟁이 세계적 경쟁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GE의 에코메지네이션과 같은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대응이 절실히 느껴진다. 지역사회와 가정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적 저탄소 생활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업 중 칼날에 둘 뒤집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빡거리며 이를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도록 해야 한다. 눈을 비벼 강제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한다. 눈을 비벼 강제로 빠져나오면 오히려 각막에 상처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둘째, 벌초를 하면서 우려되는 또 하나의 불안·위험요인이 바로 벌과 벌에

초를 하거나 논밭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예취기의 사용이 미숙한 도시인이 모처럼 사용하다가 둘이 뛰거나 칼날에 의한 다리 등을 디치는 사고로, 사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예취기 안전사고는 추석을 앞두고 벌

이 형 살충제를 미리 준비하면 이를 퇴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벌에 쏘이 경우에는 벌침을 순기락으로 빼내지 말고 신용카드와 같은 얇은 재료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더 안전하며 벌에 많이 쏘이 경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벌에 물렸을 때에는 물린 부위에서 10~15cm정도 위쪽에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둑어 둑 퍼짐을 방지하는 처치가 필요하며 어떤 종류의 벌에 물렸는지를 의사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해독제 투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셋째, 성묘나 야외활동을 다녀온지 1~3주후에 근육통에 시달리고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의사의 도움을 받아봄이 안전하다.

끝으로 모처럼 가족 친지와 만나 반가움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추석명절을 맞아 순간의 방심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가져드리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주의를 숙지하여 가족간의 정이 깊어가는 추석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광주시 방재관리과장〉

'사랑 나누며 사는 사회' 기부문화 정착됐으면

은행들 '부유층 위주 마케팅'에 박탈감 느껴

얼마전 모 은행이 VIP 고객을 은행에 소개해주는 고객에게 골프채나 호텔 숙박권을 주겠다는 것을 보았다. 알뜰살뜰 돈 모으는 서민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수수료만 비싸게 폐가면서 부유층들에게는 우량고객이라며 특별 대접하는게 불쾌했다.

여기다 부유층이 수억원을 예치하는 고객을 소개해 줄 경우 그 소개자에 더 큰 혜택을 주는 MGM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놀랐다. 고객의 소개 힐레이가 3단계를 넘었다.

가면서 돈 많은 사람들끼리 둘치고, 은행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혜택과 대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그 와중에 서민들은 푸대접 받고, 대출 때 담보 없이는 절대 안 되며,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은 많아야 300~500만원 꿔주면서 이자는 13% 대로 압청나게 비싸다. 은행이나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다지만 이런 부유층 위주의 마케팅은 서민들의 삶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김정수·광주시 북구 운정동

시설

'亞문화전당' 갈등 점고 조기완공 힘 모아야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으로 1년여 동안 차질을 빚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22일 10인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5월의 문'(별관 1, 2층 일부를 뚫고 문을 만드는 것) 대안을 수용하기 때문이었다.

1년 넘게 완전철기 입장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역사회 여론수렴 결과를 존중해 국책사업의 좌표를 수정한 드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보존과 철거를 놓고 오랫동안 지역사회가 극명하게 갈려 있으면서도 각계의 노력과 재정을 정부가 수용해 진일보한 학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도청별관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접고 조기 완공에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당초 201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랜드마크 논란에 옛 도청 별관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8월 현재 10%대의 공정률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별관 철거를 전제로 했던 설계안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문화전당

금리인상 대비 서두를 때다

양도성 예금증시(CD) 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CD 금리에 연동돼 있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짜리 CD 금리는 최근 1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해 2.7%를 넘었다. 한 달 전에 비해 7.57%가 올랐고 석 달 전에 비해 12.03%나 상승한 것이다. 이는 시장 금리의 전반적 상승세 속에 은행들이 경기회복에 대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CD발행률을 높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는 다가올 금리 인상에 맞춰 상환 능력을 점검하고 고정금리형 대출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等鼓

'캐리 트레이딩'(carry trading)이 회복기에 접어든 세계 경제의 새로운 투자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자금을 빌려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머니 게임이다.

캐리 트레이더들은 최근 10년간 일본 엔화를 빌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투자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예고한 '3월 파국설'도 엔 캐리 자금의 이탈을 가정해 나온 시나리오였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런 흐름을 바꿨다. 미국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면서 미국 돈을 푸는 바람에 달러가 엔화를 받아들이 안전하다.

약명은 해지펀드 등이 지금 리포트를 빌려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 자금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실물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코스피가 1, 700선을 돌파한 것이다. 건설업체가 부

/김정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譯直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자국·국제신문·배달연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사 회 2 부	2200-692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			